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태도교정 [빌립보서 2:1-9]

설교자: 앤드류 드 브리스 (Andrew de Vries)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도는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변화하게 만든다.' 만약 여러분이 나쁜 태도로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본문 2, 5절에 '마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음이란 단어는 세상과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내 자신을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한다고 말합니다.

1,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관한 설명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관해 말하는 이유는 빌립보교회의 몇몇 성도들이 자기 자심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들의 방식을 고수하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분열을 야기 시켰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2에서 이 분열을 가리켰습니다. *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2).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갖는 것은 교회 안에 조화를 이룹니다. 4절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라는 근본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눈을 무언가에 고정하고 잠시 동안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 스스로의 관심사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이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태도가 항상 자기 자신의 관심사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축복이 되고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식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바라보던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만 오직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소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꺼이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스스로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기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리스도인 태도의 발전

우리는 이런 겸손한 태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6-9). 그 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셨고 자기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분은 자신을 따르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겸손한 태도를 재현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분은 자기 자신을 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을 고

집하거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신성의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할 때만 나는 세상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 분은 또한 왕으로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닌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그 분은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분은 십자가에 죽음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1:7). 만약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께서 기꺼이 섬기는 자로서 사셨다면 우리도 역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는 또한 그 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자리엔 하나님의 형상이라곤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흥측하고 경멸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분은 자기 자신의 관심사 때문에 십자가에 메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구원하기로 한 자들의 관심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누가 십자가의 발 앞에 서서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섬겨야하며 나를 환호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발 앞에 서서 깊은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 분의 겸손 닮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분과 동일한 겸손한 자세를 부어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